

중국경제 현안 브리핑

02-45호 / 8월 5일

중국, 제조업부문 민영기업 육성 시급

1. 개요

- 중국정부 산하 연구원이 제조업 부문에서 민영기업이 갖는 비교우위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정책 건의를 하였음.
- 최근 국가발전계획위 산하 宏觀(거시)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WTO 가입 이후 제조업 분야에서 민영기업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책은 여전히 국유기업에 집중되어 있다며, 국제경쟁력을 갖춘 민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현재 민영기업은 재산권을 제대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의 각종 지원 혜택에서 제외됨.
- 동 보고서는 중국의 전체 산업구조조정 차원에서 민영기업을 전통적인 제조업에 특화,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함.

2. 제조업 부문에서 민영기업의 역할과 정부의 지원책

- 제조업에서 민영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에서 비교우위가 높음.

- 민영기업은 고정자산의 투입대비 산출 수준이 국유기업에 비해 높음.
 - o 1998년도 민영기업이 공업부문 고정자산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였으나 산출은 35% 이상을 차지함(<표 1> 참조).
 - o 1999년에는 고정자산투자가 국유기업은 61%, 민영기업은 16%였지만, 산출량은 국유 57%, 민영 21%로 민영기업의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민영기업은 자본·기술집약적 제조업보다는 노동집약적 제조업에서 비교우위가 있음. (예: 인쇄, 가죽제품, 플라스틱, 의류, 유색금속 등)

□ 이러한 비교우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정책은 국유기업 위주로 되어 있어, 민영기업에 상대적으로 불리함(<표 2> 참조).

- 민영기업은 상대적으로 고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중장기대출, 주식발행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음.
 - o 1997~1999년간 전국 상업은행의 對민영기업 대출은 전체의 7% 수준에 불과함.
 - o 민영기업의 최대 집산지중 하나인 절강성 溫州의 경우 공식 금융기관을 대신해 불법적인 私金融을 이용하는 예가 빈번함.

□ 또한 민영기업은 정부의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음.

-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 대상은 120개 대형 국유기업과 1,000개 중형 국유기업에 한정되어 있으며, 국채 발행을 통해 확보한 지원금(2000년 150억 元, 2001년 180억 元) 역시 대형 국유기업에 투입됨.
- 지방정부는 산하 국유기업의 육성을 위해 경쟁관계에 있는 민영기업의 성장을 견제하기도 함. 민영기업은 토지사용과 기술도입 측면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음.

3. 평가 및 시사점

□ 민영기업은 의류, 완구, 식품 등 제조업 위주로, 국유기업은 자동차, 철강, 기계 등 자본집약적 산업을 위주로 산업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민영기업에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의 기술개발 및 생산설비 개선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이 소유제의 차이에 따른 제약을 받지 않고, 시장원리에 따라 M&A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특히 이 경우 지방정부의 불필요한 간섭을 배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의 정비 필요함.

○ 과거 연 25%에 달하던 민영기업의 투자증가율이 최근 10% 수준으로 하락한 것도 민영기업에 대한 차별과 무관치 않음.

<표 1> 민영기업과 국유기업의 공업부문 고정자산투자 비중

		계	국유기업	외자기업	민영기업
1997	기초	100.00	82.9	9.2	7.7
	전통	100.00	53.6	30.7	15.6
	하이테크기술	100.00	30.5	53.1	16.3
	전체공업	100.00	68.8	19.1	11.2
1998	기초	100.00	79.6	10.0	10.4
	전통	100.00	58.1	25.10	16.6
	하이테크기술	100.00	32.5	49.9	17.6
	전체공업	100.00	67.1	19.9	12.9
1999	기초	100.00	74.8	12.9	13.5
	전통	100.00	43.1	36.8	20.1
	하이테크기술	100.00	24.0	58.1	18.0
	전체공업	100.00	61.3	22.7	16.0

자료: 『고정자산투자통계연감』 (2000)

<표 2> 민영기업과 국유기업의 대출환경 비교

	민영기업	국유기업
해외차관	어려움	가능
수출신용대출	어려움	가능
주식발행과 상장	명시적인 제한은 없지만 심사기준이 매우 엄격	경영실적 기준으로 허용
장기상업대출	중소기업은 매우 어려움	용이함
채권발행	원칙상 불허	중점기업 허용
기술개발우대대출	원칙상 대상에서 제외	중점기업 허용
프로젝트파이낸싱	원칙상 대상에서 제외	중점기업 허용

자료:국가경제무역위원회와 국가발전계획위원회 공동조사자료(工商時報, 2002년 7월 9일자)

(***)